

공개된 정보

2020년 5월 16일 저녁 8시, 유명 연극배우 윤미영의 저택. 어두컴컴한 조리실 안에서 두 사람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이미 거나하게 취해 얼굴이 붉어진 남자가 연신 술잔을 들이키며 중얼거렸다.

“죽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남자의 이름은 김진호. 윤미영의 남편이자 명목상의 저택 주인이다. 다시 술잔으로 뺨어가는 그의 손을 맞은편의 남자가 제지하며 입을 열었다.

“형님, 안주 나오면 드세요.”

김진호를 형님이라고 부른 남자의 이름은 박인권. 윤미영의 매니저이자 비서 같은 존재다. 인권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칸에서 오른 속을 들여다 보던 남자가 덜컥 오븐을 열었다.

“올커니, 다 됐다.”

저택의 전속 요리사인 최종인은 갈색이 돌도록 잘 익은 통닭을 오븐에서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미리 해동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시간이 걸렸네. 어서들 드세요. 전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종인은 말을 하며 인권을 흘깃 쳐다보았고, 인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호는 이미 인사불성이었다. 종인이 밖으로 나가고 들어서 술잔을 주거나 받거나 한 지 20분쯤 지나, 닭구이가 뼈만 남았을 즈음 종인이 밖에서 갑자기 인권을 불러냈다. 진호는 신경도 쓰지 않고 술에만 열중했다. 그러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간 지 잠시 후, 소란스러운 소리가 미영의 연습실에서 들려왔다. 깜짝 놀란 진호가 밖으로 뛰어 나가보니, 종인과 인권이 연습실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경비실장인 주광일이 경비실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진호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에 광일이 연습실 열쇠를 가져왔고, 세 사람은 서둘러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볼썽 낯선 연습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막다 남긴 듯한 저녁식사가 접시에 놓여있을 뿐.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증언에 따른 타임라인

오후 6시	박인권, 연습실로 저녁식사 가져감
오후 6시 30분	주광일 순찰시간
오후 7시 3분	박인권, 김진호를 불러냄
오후 7시 8분	박인권과 김진호, 조리실에서 술을 마심
오후 7시 12분	최종인, 냉동닭을 가지러 냉동창고로 감
오후 7시 31분	최종인, 조리실로 복귀
오후 8시	주광일, 연습실 앞에 도착. 안에서 대분을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 대기
오후 8시 10분	최종인, 조리실에서 나갈
오후 8시 30분	박인권, 조리실에서 나갈
오후 8시 37분	연습실 안의 목소리가 끊김. 연습실 문 앞에 있었던 박인권, 주광일의 일관된 증언
오후 8시 38분	최종인, 연습실 앞에 도착
오후 8시 40분	주광일, 경비실로 이동. 김진호, 연습실 앞에 도착
오후 8시 43분	주광일이 가져온 마스터키로 연습실 개방. 윤미영 실종



최종인(38) 남

→ 당신은 범인이 아니다.

* 비밀: 범인을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과의 밀약 내용

* 승리조건: 1. 범인을 찾아낸다. 2. 범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이지 않는다.

당신의 행적

당신은 이 저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전속 요리사다. 한 때는 뛰어난 호텔 주방장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지만, 식자재를 빼돌려 주머니를 채우다가 쫓겨난 과거가 있다. 호텔 주방장으로서 버는 돈이 모자란 건 아니었다. 도박에 빠지지만 않았더라면, 당신도 남부럽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저택에 고용된 뒤에도 손바릇은 어디 가지 않아서, 여전히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나마 나은 것은 공범이 생겼다는 것이다. 공범이 생기면서 일은 훨씬 편해졌다. 당신이 하는 일은 경비실장인 주광일의 순찰시간에 맞춰 냉동창고의 식자재들을 골라 아이스팩과 함께 대형 캐리어에 넣고, 그 캐리어를 밖에 내놓는 것뿐이다. 그리고 나면 경비실장인 광일이 그 캐리어를 끌고 가서 경비실 앞에 주차된 냉동탑차에 실어둔다. 경비실장이 직접 하는 일이니 경비실에 걸릴 염려도 없다. 대가라고 해봤자 매번 작업 때마다 광일에게 풍돈을 쥐어주는 것뿐이다. 식자재가 비는 문제도 저택의 재산관리자이자 윤미영의 남편인 김진호가 눈감아주고 있기에 문제 없다. 김진호는 그 대가로 식자재의 수급방식이나 식단을 자기가 정하겠다고 했고, 당신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식단을 정한다고 해 봤자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정도다. 한 마리밖에 없는 냉동닭을 제놈의 술안주로 먹어야겠답시고 저녁 식단에서 닭고기를 뺀 정도. 이런 시시한 욕심을 위해서 제 집 살림이 빼먹히는 걸 눈감아주는 어처구니 없는 남자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매번 특정 식자재 하나씩을 꼭 한 끼 분량으로만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매주 종류를 바꿔가면서. 어떤 때는 닭고기였고, 어떤 때는 쇠고기였다. 육류라는 점만은 공통적이지만, 며칠 전에도 괴상한 지시를 했다. 다음 주 식단에 들어가는 육류를 돼지고기 뒷다리로 제한하라는 것. 지나치게 구체적이다.

진호는 식자재를 빼돌릴 때도 돼지고기 뒷다리는 제외하라고 요구했지만, 당신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과감하게 돼지고기 뒷다리를 캐리어에 쟁겨 넣었다. 어차피 이 것도 이제 오늘로 청산이니까. 당신은 오늘 중요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미영의 매니저이자 입주 비서인 박인권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는 사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당신과 인권은 고향 선후배 사이다. 같은 고등학교, 그러니까 주완고등학교의 미스터리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고, 당시만 해도 두 사람 다 탐정 소설 작가를, 아니 사실은 탐정을 꿈꾸고 있었다. 두 사람 다라고는 했지만 인권은 특별히 더욱 그랬다. 사실 인권은 좀 괴이한 녀석이었다. '시체가 직접 보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결국 의대로 진학했고, 한 때는 병원에 들어가 의사 생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환자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이유로 해고되어 의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럼 그렇지...

인권과 당신이 세운 계획은 큰 '한탕'이었다. 최근 당신의 도박빚은 이미 집채만큼 불어나, 돌려막기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인권 역시 최근에 돈 문제인지 뭔진 몰라도, 어딘가 전전긍긍하는 느낌이다. 두 사람은 오늘 밤, 미영의 연습실에 있는 금고를 털어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들을 몽땅 들고 자카르타로 도망갈 생각이었다. 해외도피를 위한 항공권도 당신이 이미 준비해두었다. 계획은 간단하다. 먼저 인권이 저녁식사에 수면제를 타서 연습실로 가져간다. 수면제는 당신이 구해다 주었다. 그리고 진호를 불러다가 술잔치를 벌이면 이 저택의 주인 내외는 둘 다 무방비 상태가 된다. 금고의 비밀번호와 재산 목록은 진호가 가지고 있을 것이니, 인권이 진호의 술 상태를 하는 동안 당신은 술 안주로 쓸 냉동닭을 챙겨온다는 핑계로 나가서 진호의 방에 들어가 비밀번호와 재산목록을 찾아 베껴온다. 열쇠는 없지만 문제 없다. 술만크이나 담배도 좋아하는 그의 방 창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일은 잘 진행되었다. 저녁 6시쯤 되자 인권이 미영의 저녁식사를 들고 나갔고, 7시가 조금 지나 인권이 진호를 데리고 들어왔다. 둘이서 술을 주머니 받거나 하는 동안 당신은 진호의 방에 들어가 재산목록과 비밀번호를 찾아내는데 성공했고, 너무 늦기 전에 냉동닭을 챙겨 돌아왔다. 냉동창고가 어찌 어질러져 있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신경 쓸 일이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절도 실행만 남았다. 당신은 조리실에서 닭을 구워 두 사람에게 내놓은 다음, 그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 문 밖으로 나섰다. 하지만 그 마지막 단계의 문 앞에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있었다. 경비실장인 주광일이 연습실 문 앞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었다. 광일이 사라지기를 기다려보았지만, 광일은 문 앞에 서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조리실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진호는 이미 술독에 빠져 있었다. 당신은 인권을 슬쩍 불러내어 상황을 설명했고, 인권은 자기가 광일을 쫓아 보내겠다고 연습실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인권이 광일의 앞에 도착했을 때, 돌발 상황이 일어났다. 광일이 갑자기 연습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당황해서 달려간 당신에게, 광일은 "사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대본 연습 중이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다."라며 마스터 키를 가져오겠다고 경비실로 뛰어갔다.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진호도 밖에 나와 있었다. 이대로 계획은 무산되는 건가? 지금이라도 도망가야하나 망설이던 참에, 인권이 당신에게 안심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렇구나. 잘 생각해보니,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건 아니다. 오히려 연습실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미영은 잠든 것을 테고, 다른 사람들은 인권이 어떻게든 구실을 붙여서, 그러니까 미영을 병원으로 옮기려던가 하는 적당한 이유로 내보낼 수 있다.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당신은 또다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암전히 잠들어 있어야 할 미영은 거기에 없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 **팁:** 범인이 누군지 확신했다면, 범인과의 밀약을 폭로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데 크게 도움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추리가 틀렸다면 페베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죠.

• **다른 용의자와의 밀약 내용**

주광일: 돈을 주고 식자재를 빼돌리는 일을 돕게 했다.

김진호: 멋대로 식단을 바꾸는 요구를 들어줬다.

박인권: 미영의 금고를 털고 같이 해외로 도망가려 했다.